

2019년 1월 1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경기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전환 Wsj,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완화를 검토 중이다”

경기 자신감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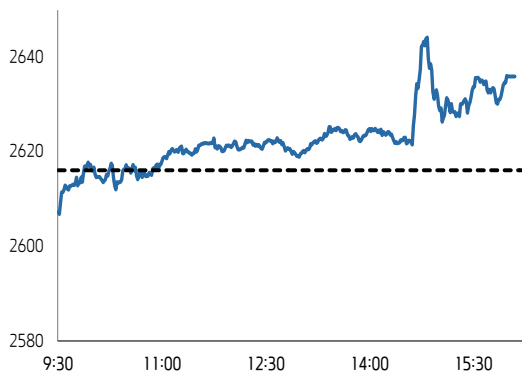
미 증시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 우려로 하락 출발 했으나, 개선된 경제지표 및 웰스 연준의장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에 힘입어 상승 전환에 성공. 한편, 오후 들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상승폭 확대(다우 +0.67%, 나스닥 +0.71%, S&P500 +0.76%, 러셀 2000 +0.86)

오늘 미 증시의 특징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한 점. 주요 금융주는 대부분 대출 증가 및 자영업 부문 이익 증가에 힘입어 실적 개선. 대출태도가 견고한 점을 감안 경기 둔화 우려감을 완화 시켰다고 볼 수 있음. 이런 가운데 중도 매파 성향의 웰스 연준 부의장은 “경제지표는 매우 강하고 계속 좋을 것이다” 라고 주장. 더불어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 둔화 위험을 이야기하지만, 경제에 대한 기본 전망은 매우 강하다” 라고 언급하며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 관련된 발언 후 미 증시가 상승 전환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짐

한편, 미국 ISM 제조업 PMI 의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1 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9.1)이나 예상치(10.0)을 크게 상회한 17.0으로 발표됨.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주문이 전월(13.3)보다 크게 증가한 21.3 으로 발표되며 향후 전망 또한 긍정적. 특히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최근 10 월 이후 3 개월 연속 감소(15.6→7.9→4.0) 했으나, 이번 발표에서 6.0으로 개선. 이런 지표 결과는 미국 경기 개선을 이야기 하고 있음.

오후에는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 시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위험자산 선호심리는 더욱 개선되며 미 증시는 한 때 1% 넘게 상승. 다만, 재무부 관계자가 누구도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다고 언급하자 상승폭을 일부 반납. 그러나 화웨이와 ZTE 에 대한 미 의회의 수출 통제 관련 법안 발의로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관련 보도가 나왔다는 점에서 위험자산 선호심리 증가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07.06	+0.05	홍콩항셱	26,755.63	-0.54
KOSDAQ	686.35	-1.01	영국	6,834.92	-0.40
DOW	24,370.10	+0.67	독일	10,918.62	-0.12
NASDAQ	7,084.46	+0.71	프랑스	4,794.37	-0.34
S&P 500	2,635.96	+0.76	스페인	8,908.60	-0.05
상하이종합	2,559.64	-0.42	그리스	616.96	-0.93
일본	20,402.27	-0.20	이탈리아	19,470.38	-0.0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바이오 업종 강세

바이오업종인 Regeneron(+3.17%)은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이는 보고서 발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 J&J(+0.82%)를 비롯한 에브비(+1.93%), 머크(+1.33%) 등 제약주와 바이오젠(+1.90%), 길리어드 사이언스(+1.49%) 등 바이오주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며 상승 했다. 알코아(+2.10%)는 전일 장 마감 후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록히드마틴(+2.37%)과 노스롭그루먼(+3.26%)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 전략을 개편하자 상승 했다. 넷플릭스(+0.51%)는 장 마감 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여파로 시간외로 2% 하락 중이다.

모건스탠리(-4.41%)은 채권거래 실적 둔화로 예상을 하회한 4Q 실적을 발표하자 급락 했다. 중형은 행인 키코프(-2.51%)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대출성장이 약하다고 발표하자 하락 했다. 철도운 송회사인 CSX(-0.44%)는 2019년 매출 성장 둔화를 예상한 여파로 하락 했다. EA(-0.68%)는 투자의 견이 하향 조정된 여파로 하락 했다. P&G(-0.01%)는 S&P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자 하락 했다. 보석회사인 Signet Jewelers(-24.67%)은 연말 쇼핑시즌 판매 둔화 발표되자 급락 했다. 웨스턴디지털(-3.59%)와 시게이트(-2.49%)는 실적 부진 전망과 배당금 삭감 우려가 높아지자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58%	대형 가치주 ETF	+0.72%
에너지섹터 ETF	+0.98%	중형 가치주 ETF	+0.80%
소매업체 ETF	+0.66%	소형 가치주 ETF	+0.75%
금융섹터 ETF	+0.51%	배당주 ETF	+0.43%
기술섹터 ETF	+0.64%	변동성 ETF	-0.73%
소셜 미디어업체 ETF	+0.74%	대형 성장주 ETF	+0.83%
인터넷업체 ETF	+0.93%	중형 성장주 ETF	+1.01%
리츠업체 ETF	+0.56%	소형 성장주 ETF	+1.05%
주택건설업체 ETF	+0.69%	신흥국 고배당 ETF	+0.31%
바이오섹터 ETF	+1.05%	신흥국 저변동성 ETF	+0.36%
헬스케어 ETF	+0.93%	하이일드 ETF	+0.29%
곡물 ETF	+0.58%	물가연동채 ETF	-0.08%
반도체 ETF	+1.23%	Long/short ETF	+0.2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2.58	+0.98%	+0.31%	+5.86%
소재	329.60	+1.68%	+0.26%	+4.42%
산업재	579.39	+1.65%	+1.29%	+4.46%
경기소비재	836.35	+0.68%	+0.94%	+5.46%
필수소비재	531.94	+0.39%	+0.62%	-0.86%
헬스케어	1,030.62	+0.90%	+1.64%	+3.37%
금융	424.38	+0.54%	+4.52%	+7.47%
IT	1,129.70	+0.67%	+1.13%	+1.42%
커뮤니케이션	148.98	+0.38%	+1.16%	+4.51%
유틸리티	269.44	+0.42%	-0.74%	-2.08%
부동산	201.96	+0.47%	+2.03%	+1.0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위험자산 선호심리 지속

MSCI 한국지수 ETF 는 0.18% MSCI 신흥지수 ETF 도 0.44%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508 계약)에 힘입어 1.35pt 상승한 273.7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은 1,120.6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경기 개선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증시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브렉시트 관련 노동당이 수정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21 일 영국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우호적이다.

한편, 미 증시 마감 전 일부 언론은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점도 긍정적이다. 물론 재무부 관계자가 누구도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인터뷰 하기도 했으나, 특히 전일 화웨이와 ZTE 에 대한 미 의회의 수출통제 관련 법률안 발의로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이 약화된 가운데 나왔다는 점은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지수 개선

1 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9.1)은 물론 예상치(10.0)를 상회한 17.0 으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수주(13.3→21.3)가 크게 급증했으나, 출하지수(12.4→11.4)가 소폭 하락 했다. 한편, 고용지수(19.1→9.6)가 크게 둔화 되었으며, 재고지수(2.6→-7.6)도 위축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파운드화 급등

국제유가는는 미-중 무역분쟁 우려 및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1,190 만 배럴을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다만, OPEC 이 원유시장 보고서를 통해 OPEC 그룹의 생산량이 12 월 들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발표하자 낙폭은 제한 되었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개선과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장 마감 직전 무역분쟁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약세 전환하는 등 보험권으로 마감 했다.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야당인 노동당이 수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특히 '노딜 브렉시트' 우려감이 완화된 점도 강세 요인 중 하나 였다.

국채금리는 섣다운 장기회 및 미-중 무역분쟁 우려로 하락 출발 했으나, 양호한 경제지표 및 웰스 연준 부의장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에 힘입어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특히 주식시장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에 힘입어 상승 전환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강세 및 위험자산 선호심리 부각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자 상승 했다. 중국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66%, 철근도 1.10%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2.07	-0.46	-0.99	Dollar Index	96.045	-0.01	+0.53
브렌트유	61.18	-0.23	-0.81	EUR/USD	1.139	-0.02	-0.96
금	1,292.30	-0.12	+0.38	USD/JPY	109.2	+0.10	+0.71
은	15.536	-0.65	-0.68	GBP/USD	1.2989	+0.81	+1.90
알루미늄	1,858.00	-0.05	-0.16	USD/CHF	0.9936	+0.33	+0.92
전기동	5,992.00	+0.37	+1.05	AUD/USD	0.7193	+0.35	+0.11
아연	2,547.00	+2.02	+3.49	USD/CAD	1.3275	+0.15	+0.29
옥수수	380.00	+1.60	+1.00	USD/BRL	3.746	+0.25	+0.92
밀	517.75	+1.02	+0.78	USD/CNH	6.7749	+0.19	-0.27
대두	907.75	+1.48	+0.11	USD/KRW	1122.50	+0.21	+0.38
커피	102.40	0.00	-1.77	USD/KRW NDF1M	1120.68	+0.12	+0.34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743	+2.14	+0.11	스페인	1.361	-1.20	-8.80
한국	1.977	+0.20	+1.70	포르투갈	1.753	-3.20	+4.10
일본	0.006	-0.40	-1.80	그리스	4.201	-2.00	-10.40
독일	0.243	+1.90	-1.20	이탈리아	2.763	+1.00	-12.40